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처리”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한유총 조심해야” 경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 원칙적 동의… 독일식은 불가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제도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향해서는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조심하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또 최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성을 풀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치원3법과 관련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관할 상임

위 소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처리할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패스트트랙을 쓸 것이다. 바른미래당도 찬성 입장이기 때문에 동의하면 상정할 수 있다. 총 330일이 걸리는데,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표결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을 사용하면 한층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은 법을 처리할 것이다. 우리 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원안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조심해야 한다.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농성을 풀고 민주당과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상 때에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야당 협의안을 가져와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공감한다는 내용을 논의했다. 그런데 한국당이 도농복합형을 제안하면서 합의가 어려웠던 것”이라며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인 정유섭 의원을 만나보니 (한국당은) 90%가 반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야당의 민주당 공격은 이해가 안 된다. 억울하다”며 “선거제 개편은 모든 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통령과 5당 지도부가 담판회동을 하거나 밀실

합의를 한다고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4당이라도 합의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한국당을 압박해야 하는데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가 중요하다. 세부적인 건 그 다음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100% 독일식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는 대해서는 “12월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경사노위 논의 데드라인은 1월말까지다. 그 이상은 못 기다린다”고 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행법이 3개월까지는 탄력근로를 허용하게 돼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내년 1월은 탄력근로를 활용하면 된다.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뉴시스

‘의회의 역할과 금융도시 육성’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완산소방서에서 특강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전주 7)이 11일 전주 완산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완산소방관 및 의용소방대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송성환 의장은 “요즘시대의 화두인 소득주도·포용적 성장을 주도할 산업이 바로 금융업이다”며 “전북 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를 성장동력으로 삼아 전북을 금융허브로 만들고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주완산소방서 소방공무원 직장교육·육훈련 직무교육’ 강사로 나선 송 의장은 ‘의회의 역할’과 ‘전북혁신도시 금융도시 육성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송성환 의장은 먼저 “도민과 전북도의회는 소방 관계자 여러분들에 대해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여러분들께서도 투철한 사명감과 활동분야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해 그 기대에 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장은 “우리 11대 도의회는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집행부에도 업무능력 못지않게 정무적 판단과 소통을 중요시 여기며 전북발전을 위해 하나 하나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성환 의장은 “연기금안착을 위해서는 금융인재육성을 위한 연기금전문대학원설립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일에 도의회도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며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서도 전북혁신도시가 제3금융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응원 해달라”고 부탁했다.

송성환 의장은 “새로운 천년을 맞은 우리 전북이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소방대원 여러분들이 먼저 칭찬문화 확산의 전도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논개정신 계승

민주당 안호영 의원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영·호남 심포지엄 개최

논개 탄신 444주년을 맞아 논개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영·호남 심포지엄이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11일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에 따르면 정세균 전 국회의장, 박대출 국회의원을 비롯해 장수군 및 진주시 등 영호남 지역에서 90여명이 참석한 이번 영·호남 심포지엄은 (사)의남주논개정신선양회(회장 김순홍)가 주최하고, 한문화국제협회(KCIA, 이사장 김관수)가 주관해 진행됐다.

심포지엄에서는 한문화국제협회 정천모 자문위원장의 ‘논개따라 삼백리’, 진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강동욱 실장의 ‘논개의 의로운 정신을 국훈으로 승화 제언’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또한 우석대 김태호 교수의 진행으로, 김순홍 회장과 함양논개추모회 오일창 회장, 진주논개정신선양회 김길수 회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논개의 삶은 화합”이라며 “논개가 품은 실천한 희생과 화합



교육부 직원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를 마친 후 유아교육정책과를 방문해 직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나경원 당선… 女 최초 선출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나경원(4선) 의원이 11일 선출됐다. 자유한국당에서 여성 원내대표가 선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나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인 정몽기(재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거에서 전체 103표 중 과반을 넘긴 68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있다.

나 원내대표 임기는 1년으로 내년 12월까지지만,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으면 2020년 4월 총선 때까지 원내대표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뉴시스

김광수 의원, 어르신 일자리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 시갑, 민주평화당)이 11일, 전주 시청 강당에서 기본 교육훈련부터 취업지원,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의 모형구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어르신일자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노인인구 수에 비해 노인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지난해 취업대기 노인은 4만 5,966명에서 올해 8월 10만 9,884명으로 급증했고, 2020년 베이비부머세대가 노년층으로 합류되면 노인일자리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한 재설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급하며, 기본 교육훈련부터 취업지원, 사후관리 등을 종합 지원하는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을 통한 노인일자리 활성화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